

부부의 심리적 욕구차이, 배우자 욕구오해 및 부부갈등간의 관계*

허진자 고재홍*
경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심리적 욕구에 대한 차이와 오해의 크기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부부갈등과 관련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관계성, 자율성 및 유능성의 3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중 어떤 영역에서 부부간 차이와 오해가 크며, 어떤 영역에서의 부부간 욕구차이와 배우자의 욕구오해가 부부갈등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임의로 선정된 22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소영과 신희천(2006)이 개발한 커플욕구 중요성 척도를 사용하여 자신과 배우자의 세가지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부부간 욕구차이는 부부의 자기지각간 차이로, 배우자 오해는 배우자에 대한 지각과 배우자의 자기지각간의 차이로 산출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부부는 심리적 욕구에서 상보적이지 않고 서로 유사하였다. 둘째, 부부간 욕구차이가 클수록 부부갈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성욕구의 차이가 클수록 부부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편과 아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배우자의 관계성 욕구에 대한 오해가 클수록, 부부갈등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관계성욕구파악이 부부관계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심리적 욕구(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유사성, 상보성, 부부간 욕구차이, 배우자 오해, 부부갈등

우리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자신의 여러 중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다(Epstein & Baucom, 2002). 당연하게도 La Guardia, Ryan, Couchman와 Deci(2000)의 연구에서 대학생 피험자들은 자신의 기본 심리적 욕구가 주요 인물들(예 : 부모, 연인, 친구 등)로부터 충족될수록 그들의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콕소영과 손은정(2008)의 연구에서도 이성 관계에서 자신의 심리적 욕구가 상대방으로부터 충족될

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안정성이나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들(예 : 이경성, 한덕웅, 2001)의 여러 문항들이 남편(혹은 아내)의 욕구가 배우자로부터 얼마나 충족되는지를 묻는 형태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부부의 경우도 서로의 욕구가 배우자에게서 많이 충족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밀관계에서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못지않게 상대방과 비슷한 욕구를 지니는 것과 상대방의 욕구를 잘 파악하는 것도 그들 관계의 질에 긍정적 영

* 이 연구결과물은 2007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 고재홍, (631-701) 경남 마산시 월영동 449번지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55) 249-2182, E-mail : kopsy@kyungnam.ac.kr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Drigotas와 Rusbult(1992)에 따르면 각 개인마다 욕구의 강도는 다르며, 커플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상대방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욕구의 강도를 아는 것 자체도 커플관계에서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부와 같은 친밀관계에서 자신과 배우자와 욕구 차이가 있어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면, 이는 배우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배우자의 욕구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관계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한소영, 신희천, 2006).

부부갈등

Coleman(1984)은 부부갈등을 부부간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로 인한 다툼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부부들은 성격 차이, 자녀지도, 성생활과 부부간 대화, 경제문제 등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예 : 김갑숙, 최외선, 1992; 송말희, 1990). 또한 결혼기간에 따라 갈등이 높은 시기가 있으며(김민녀 등, 2006; Gottman & Levenson, 2000), 가족의 응집성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최규련, 1994),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와는 높은 부적 관련이 있었다(김영희, 정선영, 2007).

이러한 부부간 갈등은 가정생활 중 부부 사이에서 겪는 긴장감이나 사소한 말다툼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 큰 싸움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며 부부결합의 안정을 해치기도 한다(김민녀, 채규만, 2006). 또한 부부갈등은 당사자들의 결혼생활의 불만족뿐만 아니라 가족의 별거나 가정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다(김정란, 이은희, 2007; 정진아, 신희천, 2006; Grych & Fincham, 1993; Kitman, 2000). 예를 들어 정진아 등(2006)의 연구에서 자녀들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자녀들의 자아탄력성 등을 낮추고, 이는 자녀들의 우울이나 불안 등의 내현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부갈등은 결혼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동시에 부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 등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부부의 기본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이론(Deci & Ryan, 2000, 2002)은 인간의 기본욕구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는 정교하고 통합된 자기감을 발전시키려는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자기성장 경향을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Deci 등(2000)은 기본 심리적 욕구를 지속적 심리적 성장, 통합감 및 안녕감에 중요한 심리적 영향요소로 보았다.

특히 이성관계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커플(couple)간 심리적 욕구의 경우, 한사람의 욕구가 상대방에게서 충족되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기거나 관계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곽소영, 손은정, 2008). 실제로 부부관계에서 욕구 불만족은 심각한 부부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김영희, 정선영, 2007). 최근 한소영 등(2006)은 La Guardia 등(2000)의 척도를 이용하여 커플간 기본 심리적 욕구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Deci 등(2000, 2002)의 자기결정 이론을 근거로 개발된 이 척도는 커플간의 기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욕구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관계성(relatedness)욕구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상대방에게서 보살핌을 받고 싶거나 사랑받고 싶다는 느낌과 관련된 욕구이며, 자율성(autonomy)욕구는 자신의 의지, 자발성, 주체성을 가진다는 느낌과 관련된 욕구이며, 유능성(competence)욕구는 호기심, 도전,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과 관련된 욕구를 의미한다.

부부간 욕구 차이와 오해

최근에는 부부갈등, 결혼의 질 및 결혼만족도 등을 다루는 연구들에서 부부 각자의 특징보다는 부부유사성이나 부부간 차이와 같이 부부간에 존재하는 양자(dyadic) 변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재홍, 전명진, 2003; 김향련, 고재홍, 2007; 박영화, 고재홍, 2005; Acitelli, et al., 1993; Gonzaga, Campo, & Bradbury, 2007). 부부와 같은 커플이 자신과 상대방의 특징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다루는 대표적인 모형은 Kenny와 Acitelli(2001)의 양자관계 모형이다. 여러 연구들(예 : Acitelli, Kenny, & Weiner, 2001; Kenny et al., 2001)은 이 모형에 기초하여 양자간의 자기지각과 상대방지각의 일치(혹은 차이)의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부부의 경우 자신과 배

소속욕구, 통제욕구 및 애정욕구로 구분한 다음, 집단성원들의 욕구형태를 교류양립성(interchange compatibility)과 시발자 양립성(originator compatibility)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집단성원들의 사회적 욕구 크기가 비슷한 경우를 교류양립성이 높은 집단으로 보았다. 한편 시발자 양립성이 높은 집단은 소속, 통제 및 애정 욕구가 상보적인 사람들이 결합된 경우이다. 여기서 집단의 교류양립성은 양자관계에서의 유사성과 유사한 개념이고 시발자 양립성은 상보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Forsyth, 2006).

유사성과 상보성 원리 중 부부의 경우 어떤 원리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가? 양자관계를 다룬 여러 연구들은 호감의 경우 대체로 상보성 원리에 비해 유사성 원리가 더 자주 나타난다고 주장한다(예 : Magaro & Ashbrook, 1985; Meyer & Pepper, 1977). 그러나 일부의 특성에서는 상보성 원리가 우세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친밀관계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이 지배적 행동을 하면 복종적으로 반응하고, 복종적으로 행동하면 지배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집단의 리더들은 권력욕구가 약한 부하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Tracey, Ryan, & Jaschik-Herman, 2001). 집단을 다룬 몇몇 연구들에도 구성원간 시발자 양립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응집성이 높았으며, 집단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예 : Schutz, 1958).

이처럼 친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욕구는 욕구의 내용에 따라 유사성 원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도 있는 반면, 상보성 원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부부커플의 세 가지 심리적 기본 욕구 중 자율성욕구는 Schutz(1958)가 구분한 통제욕구와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욕구를 지닌 부부에서 갈등이 적을 수 있다. 즉 다른 두 욕구에 비해 자율성욕구의 경우에는 상보성 원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Coleman(1984)이 부부갈등을 부부간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로 인한 다툼으로 정의한 것처럼 부부간 욕구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부부갈등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부부간 오해에 따른 만족과 갈등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나 욕구와 같은 특성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왔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잠시 동안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의 지배성과 사교성 같은 여러 성격 특성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특성을 크게 오해하는 일은 없다는 연구가 있다(Chapdelaine, Kenny, & LaFontana, 1994). 또한 교우관계에서 상대방의 특성에 대한 오해의 크기는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awes & Mulford, 1966). Kenny 등(1994)의 연구에 따르면 양자간의 실제 특성차이와 가정된 특성차이가 작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오해의 크기도 함께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친구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오해크기가 그들의 교우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고재홍, 김명렬, 2004). 고재홍 등(2004)의 연구에서는 두 사람간의 프로파일 일치도 지표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자기 학급 짝공의 성격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혹은 오해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알아낸 다음, 둘간의 오해크기와 짝공과의 관계만족도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부부를 다룬 Acitelli 등(2001)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시 자신의 배우자가 사용하는 갈등대처 행동에 대한 오해크기(즉 배우자가 갈등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정도)가 클수록 그들의 결혼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오해가 클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부가 여러 특성에서 실제로 얼마나 유사한가 혹은 다른가 뿐만 아니라, 부부가 배우자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의 정도도 결혼관계의 질에 영향을 준다(김미경, 고재홍, 2008; Acitelli, Douvan, & Veroff, 1993). 예를 들어 김미경 등(2008)은 부부들이 자신의 배우자의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정확도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부들은 배우자의 성격, 가치관 및 태도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 중 배우자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부부들의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아마도 배우자의 성격을 잘 알고 있을수록 부부간 갈등이 적고, 그 결과 각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인이나 부부와 같은 친밀관계에서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와 오해보다는 서로 원하는 것(욕구)의 일

치여부와 서로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의 정도가 커플관계의 질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상호 욕구지각을 이용하여 어느 욕구에서 부부간 욕구차이와 오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부부간 욕구차이와 오해크기가 부부관계의 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연구들로 볼 때 친밀한 양자관계에서 차이와 상대방에 대한 오해의 크기가 두 사람간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두 사람간의 관계 종류(예 : 친구, 애인, 부부 등)와 차이와 오해의 측면(예 : 성격, 태도, 갈등해결 전략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서로간의 욕구차이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욕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혹은 알지 못하는지에 따라 부부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Deci 등(2002)의 자기결정 이론에 근거하여 제작된 한소영 등(2006)의 척도를 사용하여 부부의 기본 심리적 욕구의 차이가 그들 부부갈등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 남편과 아내 각각의 배우자 욕구에 대한 오해크기와 부부갈등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소영 등(2006)이 주장한 3가지 커플욕구(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중의 어떤 욕구에서의 부부간 차이와 오해가 나타나며, 이것들이 부부갈등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세가지 욕구에서 부부 각각의 배우자에 대한 오해(아내의 남편욕구오해, 남편의 아내욕구오해) 중 어느 쪽의 오해크기가 부부갈등 크기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심리적 욕구크기와 배우자에 대한 욕구지각을 알아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물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부부는 세가지 심리적 욕구(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중 어떤 욕구에서 차이가 크며, 이 차이가 부부갈등과 관련되나? 둘째, 배우자의 세가지 심리적 욕구 중 어느 욕구에 대해 오해가 크며, 이러한 배우자 욕구에 대한 오해크기가 부부갈등과 관련되나? 특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오해와 아내의 남편에 대한 오해 중 어느 것이 부부갈등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밀양, 진주, 서울, 김해, 창원, 마산, 안산에 거주하는 임의로 선정된 결혼 1년 이상 된 부부 223쌍이었다¹⁾. 응답자의 개인적인 신상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무기명으로 부부 각자가 따로 미리 준비된 설문지에 응답하여 제출용 봉투를 봉한 다음 제출하도록 하였다. 부부쌍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각 설문지의 맨 뒷장에 응답 부부 쌍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코드번호를 부여해 두었다.

절차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남편용과 아내용으로 별도로 제작되어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척도, 자기 욕구평가, 배우자 욕구평가 등의 순서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연구대상 부부들의 가정이나 직장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미리 준비된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고 바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일부 직접 만나지 못한 배우자의 경우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응답을 받았다. 이들은 주로 교사, 학부모, 직장인들이었으며,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응답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총 223쌍의 부부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부부의 심리적 욕구 지각 척도

부부 각자가 커플간의 관계에서 3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최근 한소영 등(2006)이 개발한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Deci 등(2000, 2002)의 자기결정 이론을 근거로 만든 La Guardia 등(2000)의 척도를 수정한 것이다. La Guardia 등(2000)의 척도는 커플인 두 사람 각자의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욕구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소영 등(2006)의 척도는 La Guardia 등(2000)이 개발한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척도를 수정하여 “욕구의 중요도”를 측정할 수

1) 구체적으로는 밀양 131쌍, 진주 6쌍, 서울 8쌍, 김해 12쌍, 창원 27쌍, 마산 31쌍, 안산 8쌍이었다.

있도록 재구성한 척도이다. 즉 한소영 등(2006)은 La Guardia 등(2000)의 척도에서 욕구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예: “나는 ___와 있을 때, 친밀한 느낌을 받는다”)을 욕구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문항(예: “나는 ___와 있을 때 가깝고 친밀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으로 수정하여 타당화한 바 있다.

한소영 등(2006)의 척도가 연인관계에서의 욕구중요도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상황에 맞도록 문항내용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즉 한소영 등(2006)의 척도 문항들은 각 문항이 “나는 연인과 함께 있을 때 ~”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나는 아내(혹은 남편)와 함께 있을 때 ~” 등으로 시작하도록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관계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중 원래는 “나는 연인과 함께 있을 때 가깝고 친밀한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의 경우, (본 연구의 남편용 척도에서는) “나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가깝고 친밀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본 심리적 욕구 중 관계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깊은 교감과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랑받고 관심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7문항이었다. 자율성 요인의 문항으로는 “내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7문항이었다. 유능성 요인은 “무능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매우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7문항이었다. 한편 배우자의 심리적 욕구 지각을 위한 문항에서는 자기 지각에서 사용한 문항들에서 “나는 아내와 있을 때 ~” 부분을 “아내는 나와 함께 있을 때 ~” 혹은 “남편은 나와 함께 있을 때 ~”로, “~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분을 “~ 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자기 지각에서 “나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가깝고 친밀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의 경우, 배우자(예: 아내) 지각을 위한 문항으로 사용할 때는 “아내는 나와 함께 있을 때 가깝고 친밀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와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α)는 요인별로 남편용 척도는 .73-.88이었고 아내용 척도는 .84-.95이었다.

부부갈등척도

부부간 갈등지각 척도는 Olson, Fournier와 Druckman (1982)의 척도를 기반으로 최규련(1994)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남편용과 아내용 척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남편용 척도는 본인의 나쁜 습관(예: 나의 지나친 음주와 술버릇으로 부부간 갈등이 있다) 5문항, 본가와의 관계(예: 아내가 나의 본가식구에 소홀하여 불만이다) 3문항, 처가와의 관계(예: 처가식구의 이해부족과 간섭이 문제이다) 4문항, 경제문제(예: 가정의 수입이 불충분하여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3문항, ‘자녀지도’(예: 자녀의 진로지도 문제로 부부간에 의견차이가 있다) 4문항, 성격 및 가치관(예: 아내는 나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 이해심이 부족하다) 8문항, 성생활 및 대화(예: 아내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하다) 10문항 등 7개의 갈등영역으로 구분된다. 한편 아내용 갈등척도는 남편의 나쁜 습관, 시가와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 경제문제, 자녀지도, 성격 및 가치관, 성생활 및 대화 등의 7개의 갈등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응답자들에게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거의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갈등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각 문항응답의 전체 평균이 높을수록 응답자가 부부갈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최규련(1994)이 보고한 부부갈등 척도의 영역별 신뢰도(Cronbach’s α)는 .79-.91이었으며,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남편과 아내용 척도 모두 .95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갈등 영역별 신뢰도는 .72-.89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남편의 경우 .93, 아내의 경우는 .95이었다.

자료분석

부부의 심리적 욕구차이, 배우자 욕구에 대한 오해 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먼저 부부 각각의 세 가지 심리적 욕

구 각각에 대한 자기 욕구지각과 배우자 욕구지각 값을 산출하였다. 즉 (1) 남편의 자기 욕구지각 값, (2) 남편의 아내 욕구지각 값, (3) 아내의 자기 욕구지각 값, (4) 아내의 남편 욕구지각 값을 별도로 산출하였다. 그런 다음 부부간 욕구차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의 (1)-(3)의 절대값을 산출하였다. 배우자에 대한 욕구오해는 (2)-(3)의 절대값을 남편의 아내 욕구에 대한 오해크기로 정의하였고, (4)-(1)의 절대값을 아내의 남편 욕구에 대한 오해크기로 정의하였다, 그런 다음 부부간 욕구 차이와 배우자 욕구에 대한 오해크기가 부부 각각이 느끼는 부부갈등과 관련되는지를 표준화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응답 부부의 연령과 결혼기간의 구체적인 분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부부갈등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M=2.01, SD=0.56$)에 비해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갈등($M=2.11, SD=0.55$)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222)=2.56, p<.02$. 그러나 남편의 나이와 부부갈등크기($r=-.05$)와 아내의 나이와 부부갈등크기($r=-.05$)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이들의 결혼기간은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r=-.05$)과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갈등($r=.03$)과 모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결 과

기술통계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은 밀양과 진주, 서울, 김해, 창원, 마산, 안산에 거주하는 임의로 선정된 223쌍의 부부들로서 이들의 결혼기간은 1년에서 36년 사이로서 10-20년 사이가 가장 많았다. 이들의 평균 결혼기간은 14.5년이였다. 이들의 나이는 주로 30-40대가 많았으며 남편은 만 29세-79세로 평균 43.26세(표준편차 7.3세)이었고, 아내는 만 27세-62세로 평균 40.37세(표준편차 6.9세)이였다.

표 1.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N=223$ 쌍)의 일반적 특성(괄호 안은 %)

연령(만)	남편	아내	전체	결혼기간별 빈도
30세 미만	2	12	14 (3.14)	1~10년 46(20.63)
31~40	81	118	199(44.62)	11~20년 123(55.16)
41~50	107	72	179(40.13)	21~30년 45(20.18)
51~60	30	20	50(11.21)	31~40년 9(4.04)
61~70	2	1	3(0.67)	
71~	1	0	1(0.22)	

부부간 심리적 욕구

먼저 세 가지 심리적 욕구영역에서 어떤 욕구가 큰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역별 부부의 자기지각과 배우자 지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의 요약이 표 2이다.

욕구 영역별 지각자와 지각대상에 따른 욕구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지각자(2)×지각대상(2)×기본욕구(3)의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하였다. 주요결과는 첫째, 욕구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F(2, 444)=31.86, p<.01$. 이를 사후검증(LSD) 결과, 세 가지 기본 욕구 중 관계성욕구($M=5.84$)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능성욕구($M=5.12$), 자율성 욕구($M=4.91$) 순서이었다, 모든 비교쌍 $ps<.01$. 둘째, 지각자와 지각대상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444)=6.99, p<.01$.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사후검증 결과 그림 2에서 보 듯, 남편의 욕구에 대해 아내($M=5.20$)는 남편 자신($M=5.20$)과 유사하게 지각하였다, $F<1, ns$.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욕구($M=5.34$)를 아내 자신이 지각한 것($M=5.00$)보다 더 큰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F(1, 222)=20.94, p<.01$. 즉 아내보다는 남편이 배우자의 욕구에 대한 오해가 컸다.

마지막으로 자각자, 지각대상 및 욕구영역의 3원 상호

표 2. 부부의 심리적 욕구별 자기지각과 배우자 지각 평균(표준편차)

지각대상/지각자	관계성욕구		자율성욕구		유능성욕구	
	남편(H)	아내(W)	남편(H)	아내(W)	남편(H)	아내(W)
남편(h)	5.73(1.22)	5.21(1.35)	4.72(1.15)	5.03(1.22)	5.13(1.38)	5.36(1.36)
아내(w)	5.94(1.18)	5.49(1.16)	4.67(1.20)	5.10(1.03)	4.83(1.38)	5.10(1.27)

수치는 7점 만점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욕구가 큰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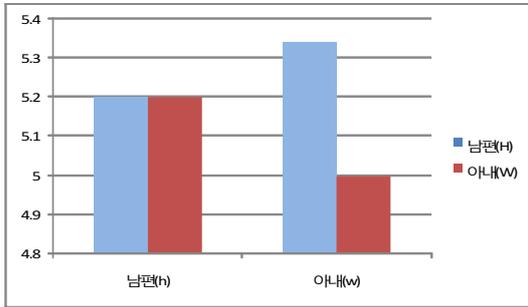


그림 2. 지각자와 지각대상에 따른 전체 욕구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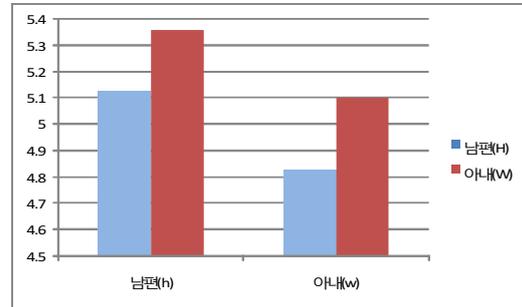


그림 4. 지각자와 지각대상에 따른 유능성욕구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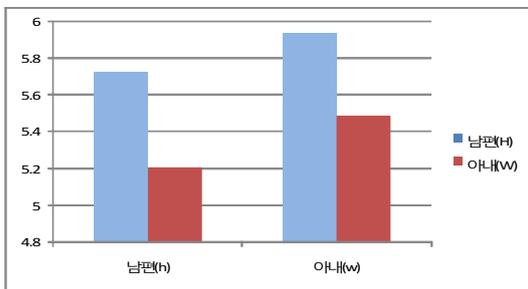


그림 3. 지각자와 지각대상에 따른 관계성욕구 크기

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2, 444)=13.84, p<.01$. 3원 상호작용의 해석을 위해 욕구별 분석에서 관계성욕구의 경우 지각자와 지각대상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222)=13.23, p<.01$.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에서 보듯, 남편의 관계성욕구에 대해 아내($M=5.21$)는 남편 자신($M=5.73$)보다 작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F(1, 222)=24.88, p<.01$, 남편은 아내의 관계성욕구($M=5.94$)를 아내 자신이 지각한 것($M=5.49$)보다 더 큰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F(1, 222)=24.75, p<.01$. 즉 남편과 아내 모두가 배우자의 관계성욕구를 오해하고 있었다. 자율성욕구의 경우에서 지각자와 지각대상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F<1, ns$, 유능성욕구에서도 지각자와 지각대상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222)=18.49, p<.01$.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4에서 보듯, 남편의 유능성욕구에 대해 아내($M=5.36$)는 남편 자신($M=5.13$)보다 크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F(1, 222)=4.39, p<.05$, 남편은 아내의 유능성욕구($M=5.10$)를 아내 자신이 지각한 것($M=4.84$)보다 더 큰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F(1, 222)=5.44, p<.05$. 즉 남편과 아내는 모두 배우자의 유능성욕구를 본인이 지각한 실제 욕구보다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남편의 욕구와 아내의 욕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 유사한지 아니면 상보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3가지 심리적 욕구크기의 부부간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부부가 유사하면 부부간 욕구는 정적 상관을 보여 줄 것이지만, 상보적이라면 부부는 부적 상관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부부간 심리적 욕구는 자율성욕구($r=.09$)를 제외한 관계성욕구($r=.32$)와 유능성욕구($r=.22$)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주고 있었다, $ps<.01$. 이 결과로 볼 때, 심리적 욕구 측면에서 부부는 상보적이기보다는 대체로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bar{r}=.22$).

부부간 욕구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부부간 욕구차이

남편의 욕구와 아내의 욕구크기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부부의 심리적 욕구 중 어떤 욕구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 변량분석 결과 부부간 심리적 욕구차이는 욕구종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F(2, 222)=4.58, p<.05$. 이를 사후검증(LSD)한 결과 부부들은 관계성욕구에서의 차이($M=0.99$)보다는 자율성욕구의 차이($M=1.19$)와 유능성욕구의 차이($M=1.14$)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ps<.01$. 그러나 부부간 자율성욕구 차이와 유능성욕구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부간 욕구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관계성, 자율성 및 유능성 중 어떤 욕구의 부부간 차이가 부부갈등(남편이 지각한 갈등과 아내가 지각한 갈등의

표 3. 세 가지 부부간 욕구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예언변인	b	표준오차	β	t	p
관계성 욕구차이	.08	.03	.17	2.44	.02
자율성 욕구차이	-.05	.04	-.11	1.45	.15
유능성 욕구차이	.01	.03	.02	0.30	.77

종속변인 : 부부갈등(남편과 부인의 갈등합)

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부의 세 가지 욕구차이를 예언변인으로 하고 전체 부부갈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표준화(standardized) 회귀분석을 하였다(표 3 참조).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부간 관계성욕구의 차이가 클수록 부부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2.44$, $p<.05$. 그러나 다른 욕구에서의 부부간 욕구차이는 부부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음에서는 부부간 욕구차이가 남편의 갈등과 아내의 갈등 각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표준화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의 요약이 표 4이다.

표 4. 부부간 욕구차이에 따른 남편과 아내가 각각 지각한 부부갈등

	남편의 갈등				부인의 갈등			
	b	표준오차	β	t	b	표준오차	β	t
관계성 욕구차이	.09	.07	.16	2.26*	.08	.04	.14	1.96*
자율성 욕구차이	-.09	.04	-.16	2.06*	-.02	.04	-.04	0.45
유능성 욕구차이	.03	.04	.07	0.88	-.07	.04	-.03	0.36

* $p<.05$

위의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이 지각한 갈등은 배우자와 관계성 욕구차이($\beta=.16$)가 클수록 갈등이 컸으나, $t=2.26$, $p<.05$, 자율성욕구의 경우 오히려 욕구차이($\beta=-.16$)가 클수록 갈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²⁾, $t=2.06$, $p<.05$. 유능성 욕구차이와 남편이 지각한 갈등크기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한편 아내가 지각한 갈등은 배우자와 관계성 욕구차이($\beta=.14$)가 클수록 갈등이 컸으나, $t=1.96$, $p=.05$, 배우자와의 자율성 욕구차이와 유능성 욕

구차이와는 아내가 느끼는 부부갈등과 관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beta=-.04$, $\beta=-.03$, ns . 전체적으로 부부간 욕구차이는 아내보다는 남편이 느끼는 부부갈등과 더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욕구의 오해와 부부갈등

관계성, 자율성 및 유능성의 3가지 영역별 오해 중 어떤 영역에서의 배우자 오해가 남편과 아내가 지각한 본인의 갈등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오해를 예언변인으로 하고 남편이 지각한 갈등크기와 아내가 지각한 갈등크기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표준화 회귀분석을 하였다. 아내의 오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의 요약이 표 5이다.

먼저 남편의 경우, 아내 관계성욕구에 대한 오해가 클수록 남편이 느끼는 갈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2.18$, $p<.05$. 그 이외의 욕구에 대한 오해는 남편의 갈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또한 남편의 아내 욕구에 대한 오해크기는 아내가 느끼는 갈등과는 모두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의 관계성욕구에 대해 오해가 클수록 갈등을 더 느끼고 있었다, $t=3.53$, $p<.01$. 그 이외의 욕구에 대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오해는 아내가 느끼는 갈등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내가 남편의 유능성욕구를 오해할수록, 남편이 갈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5$, $p<.0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심리적 욕구의 차이, 오해 및 부부갈등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의

2) 부부간 욕구차이와 남편의 갈등간의 단순 상관계수는 관계성 욕구차이($r=.13$), 유능성욕구차이($r=-.10$), 유능성 욕구차이($r=.02$)이었다.

표 5. 배우자에 대한 욕구 오해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갈등크기

	남편의 갈등				부인의 갈등			
	b	표준오차	β	t	b	표준오차	β	t
남편의 오해								
관계성욕구	.09	.04	.16	2.18*	.04	.04	.07	0.91
자율성욕구	-.04	.04	-.07	0.88	.04	.04	.08	0.96
유능성욕구	-.01	.04	-.03	0.35	-.06	.04	-.13	1.50
아내의 오해								
관계성욕구	-.01	.03	-.02	0.30	.11	.03	.24	3.53**
자율성욕구	-.06	.05	-.11	1.41	-.05	.04	-.88	1.11
유능성욕구	.09	.04	.18	2.35*	.03	.04	.06	0.82

* $p < .05$, ** $p < .01$

로 선정된 22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인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의 세 영역과 부부갈등을 측정하여 부부간 심리적 욕구 중 어떤 영역별 차이 및 오해가 부부갈등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욕구 중에서는 관계성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기본 심리적 욕구가 대체로 문화보편적 특징이 있지만, 특히 한국인들에게서 관계성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Sheldon, Ellior, Kim와 Kasser(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심리적 욕구 중 관계성욕구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관계성욕구의 충족이 관계만족도와 관련이 크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곽소영 등, 2008)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곽소영 등(2008)의 연구에서도 대학생 커플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관계성욕구가 충족될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았으나, 다른 욕구충족 정도와 관계만족도는 관련성이 낮게 나타난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만약 부부간 욕구가 상보적이라면 3가지 심리적 욕구의 부부간 상관계수는 부적 상관이 나타나야 하지만 결과에서는 부부간 욕구크기의 상관이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욕구 측면에서도 부부는 “유사성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부부간 욕구유사성이 그들의 결혼기간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³⁾, 부부는 결혼생활을 거치면서 서로 욕구가 유사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처음부터 욕구가 유사한 사람끼리 결혼했을 가능

성이 크다. 이는 교육수준, 지능, 가치관, 신체특성, 성격 등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향성이 크다는 동류결혼(homogamy) 가설이 심리적 욕구에도 적용됨을 보여주는 것이다(허윤미, 2001 참조). 또한 부부들의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에서 유사성 크기는 결혼기간과 무관하게 나타난다는 김미경과 고재홍(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남편에 비해 아내가 부부갈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대체로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은 부부갈등을 경험한다는 연구들(예 : 송말희, 1990; 최규련, 199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차이를 언급한 연구들은 오히려 남편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연구들(예 : 김민녀, 채규만, 2006)과 둘 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예 : 김영희, 정선영, 2007)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부부갈등을 세부 영역별로 구분하여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경제문제, 자녀지도, 성생활과 대화 등에서는 남편과 아내간 유의한 갈등차이가 없었으나, 성격과 가치관, 본가(혹은 시가)와의 관계 등에서는 아내가 느끼는 갈등이 남편의 갈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영역별 갈등에 영향을 주는 부부요인들도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욕구차이와 오해가 어떤 측면의 부부갈등과 관련되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셋째, 세 가지 심리적 욕구 중 어떤 욕구의 부부간 차이가 부부갈등 크기(남편이 지각한 갈등과 아내가 지각한 갈등의 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본 결과, 부부간

3) 결혼기간과 부부간 관계성 욕구유사성과 -.03, 자율성 욕구 유사성과 .04, 유능성 유사성과는 .01의 낮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관계성 욕구의 차이”가 클수록 부부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욕구에서의 부부간 차이는 부부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커플간 심리적 욕구 중 관계성욕구가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특기할 점은 자율성욕구의 경우 오히려 욕구차이가 클수록 남편이 지각한 갈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성욕구와는 달리 자율성욕구는 부부간에 상보성 원리가 작용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자율성욕구가 권력욕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권력분점이 부부갈등에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체로 친밀한 양자관계에서 유사성 원리가 우세하지만, 일부 특성에서 상보성 원리가 나타난다는 Tracey 등(2001)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유능성 욕구차이와는 부부갈등 크기와는 관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지각한 갈등의 크기에서는 관계성 욕구차이가 클수록 갈등이 컸으나 자율성 욕구차이와 유능성 욕구차이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즉 부부가 특정 욕구면에서 차이가 크면, 이로 인해 부부 갈등이 발생하고 이는 이들의 결혼만족도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예 : 고재홍, 전명진, 2003; Gonzaga et al., 2007)에서 다른 결혼만족도도 역시 부부갈등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감정으므로 부부간 요인 이외의 많은 요인(예 : 경제적 사정)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아닌 부부갈등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욕구의 차이와 배우자 욕구오해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설명량은 대체로 낮았다(각각 약 4%, 3%). 이는 부부간 갈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상황요인들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넷째,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의 3가지 영역별 오해 중 어떤 오해가 남편과 아내가 지각한 갈등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본 결과, 남편이 아내의 관계성욕구에 대한 오해가 클수록 남편이 느끼는 갈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의 남편 욕구에 대한 오해에서도 관계성욕구에 대한 오해가 클수록 아내가 느끼는 갈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아내가 남편의 유능성욕구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을수록, 남편이 느끼는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남편의 유능성 욕구($M=5.13$)를 아내가 과다평가($M=5.36$)하기 때문인 것 같다, $t(222)=3.39, p<.01$. 즉 아내가 남편의 유능성욕

구를 잘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갈등을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율성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오해크기는 갈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에서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해 나가면서 적어도 어떤 부분의 심리적 욕구의 차이와 오해를 줄이면 부부갈등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La Guardia 등(2000)의 척도를 수정한 한소영 등(2006)의 척도를 사용하여 부부의 욕구를 세 가지 영역에서만 측정하여 이들의 차이와 오해 및 부부갈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 기본 심리적 욕구의 종류가 다르다. 예를 들어 Sheldon 등(2001)은 기본욕구를 10가지로 가정하고 연구하였다. 이후의 후속 연구는 측정 영역을 넓혀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부간 상호지각에 대한 부부갈등간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속변인을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 등으로 확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정 시점에서 임의로 표집된 결혼기간이 다른 22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들 부부는 결혼기간이 매우 상이한 쌍들이었다, 결혼기간에 따라 결혼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간 욕구차이나 배우자의 욕구에 대한 오해는 결혼 초기에는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지만 결혼 후반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결혼기간의 구분기준이 모호하고, 결혼기간별로 수집된 자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의 생활 주기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부간 상호지각의 차이의 크기를 부부간의 차이점수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부부간 상호지각의 차이의 크기를 산출하는 방법은 차이점수 이외에도 다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차이와 오해의 크기를 측정하는가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부부차이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단순히 두 사람의 측정치간 차이점수 이외에도 부부간 프로파일의 일치도로 알아보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본의 대표성이나 위와 같은 몇몇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Deci와 Ryan(2000, 2002)의 자기결정

이론을 근거로 La Guardia 등(2000)이 3가지 심리적 욕구 척도를 개발하였고 한소영 등(2006)이 수정 및 개발한 척도가 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세 가지 부부간 욕구의 차이와 오해가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역으로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서로 독립적 욕구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실용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혼율이 점점 높아만 가는 현실점에서 부부가 서로 배우자 욕구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부부갈등이 줄어들어 이혼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부부상담시 부부의 갈등요인 중 하나가 부부의 배우자의 심리적 욕구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생긴다는 점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욕구차이나 배우자에 대한 오해가 어떤 매개과정을 거쳐 부부갈등이나 결혼만족도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부부간 욕구차이는 공통 관심사의 부재를 초래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 욕구에 대한 오해는 비난과 공격이 포함된 부정적 의사소통으로 이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갈등시 배우자의 대처방식에 대한 오해가 클수록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박영화 등(2005)의 결과로 볼 때, 부정적 의사소통이 부부간 욕구차이나 오해와 갈등사이에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부부상담 등을 통해 서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예 : 의사소통 기법)을 교육함으로써 부부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 고재홍, 김명렬 (2004). 청소년 교우간 성격 유사성, 상호성, 이해 및 호감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1), 53-64.
- 곽소영, 손은정 (2008). 이성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충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3(2), 177-195.
- 고재홍, 전명진 (2003).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 프로파일 유사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3), 1-16.
- 김갑숙, 최외선 (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33-143.
- 김미경, 고재홍 (2008). 프로파일 일치도로 본 부부간 유사성과 배우자 이해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3(2), 103-123.
- 김민녀, 채규만 (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1(4), 655-671.
- 김영희, 정선영 (2007).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 갈등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65-82.
- 김정란, 이은희 (2007). 중년 여성의 불안정 애착이 본인의 우울수준 및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갈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97-319.
- 김향련, 고재홍 (2007).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1(2), 89-105.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 및 갈등 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1), 65-83.
- 송말희 (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8.
- 이경성, 한덕웅 (2001).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2), 41-64.
- 정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 최규련 (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한소영, 신희천 (2006).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17-835.
- 허윤미 (2001).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의 동질결혼.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0(2), 429-448.
- Acitelli, L. K., Douvan, E., & Veroff, J. (1993). Perceptions of conflict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

- How important are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5-19.
- Acitelli, L. K., Kenny, D. A., & Weiner, D. (2001). The importance of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of partners' marital ideals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8, 167-185.
- Byrne, D., & Blaylock, B. (1963). Similarity and assumed similarity of attitudes among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636-640.
- Chapdelaine, A., Kenny, D. A., & LaFontana, K. M. (1994). Matchmaker, matchmaker, can you make me a match? Predicting liking between two unacquainted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83-91.
- Coleman, J. C. (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 The Bobbs-Merrill.
- Dawes, R., & Mulford, M. (1966). The false consensus effect and over-confidence : Flaws in judgement or flaws in how we study jud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5, 201-211.
- Dawson, D. A. (1991).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 Data from the 1988 National Health Interview Study on child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573-584.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eci, E. L., & Ryan, R. M.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NY :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rigotas, S. M., & Rusbult, C. E. (1992). Should I stay and should I go? A dependence model of break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62-87.
- Epstein, N., & Baucom, D. B. (2002). *Enhanc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couples : A contextual approa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orsyth, D. R. (2006). *Group dynamics*(4th ed.). Belmont, CA : Thomson.
- Gonzaga, G. C., Campo, B., & Bradbury, T. (2007). Similarity, converge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and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34-48.
-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interparental conflict :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737-745.
- Kenny, D. A., & Acitelli, L. K. (1994). Measuring similarity in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417-431.
- Kenny, D. A., & Acitelli, L. K. (2001). Accuracy and bias in the perception of the partner in a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439-448.
- Kitman, K. M. (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13.
- Kline, M., Johnston, J. R., & Tschann, J. M. (1991). The long shadow of marital conflict : A model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97-309.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367-384.
- Magaro, P. A., & Ashbrook, R. M. (1985). The personality

- of social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479-1489.
- Meyer, J. P., & Pepper, S. (1977). Need compatibility and marital adjustment in you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31-342.
- Olson, D. H., Fournier, D. G., & Druckman, J. (1982). *Enrich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 Schutz, W. C. (1958). *FIRO : A three-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Y : Rinehart.
- Sheldon, K. M., Ellior, A. J., Kim, Y., & Kasser, T. (2001). What is satisfying about satisfying events? Testing 10 candidate psychological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325-339.
- Tracey, T. J., Ryan, J. M., & Jaschik-Herman, B. (2001). Complimentarity of interpersonal circumplex trai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786-797.

The Impacts of Difference and Misunderstanding of Spouse's Psychological Needs on Marital Conflict

Jin Ja Hur Jaehong Ko

Kyungna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whether the difference and misunderstanding on psychological needs between married couples are related to their marital conflicts. 223 married couples living in three different areas responded to the scale so as to measure couple's three basic psychological needs (relationship, autonomy, and capability) developed by Han and Shin (2006). The difference in needs between husband and wife is operationally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husband's self-perceptions and wife's need, and the misunderstanding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one's perception to spouse and spouse's self-percep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it is shown that the couple's needs were not complementary but similar to each other. Second, the more differences between husband's and wife's needs were, the higher their marital conflict was. Especially the difference between couples' needs of relationship was related to their conflict. Third, the more misunderstanding of his (and her) spouse's relationship need, the higher conflict.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accurate understanding of spouse's relationship need has a critical role in quality of marriage.

Keywords: Psychological need; Relatedness; Autonomy; Competence; Similarity; Complementarity; Difference between married couple; Misunderstanding; Marital conflict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9월 8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11월 1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11월 9일